

죽지랑, 아름다운 얼굴

신영명*

<차 례>

1. 문제의 제기	3.1 6행시
2. 난해어 해독	3.2 익선과 죽지랑, 그리고 득오
2.1 텍스트	3.3 아름다운 얼굴을 기리며
2.2 어휘 의미	4. 맺음말
3. 배경설화와 작품의 성격	

1. 문제의 제기

〈모죽지랑가〉는 해독상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향가 연구에 있어 어학적 해독이 벽에 부딪힐 때 흔히 문학적 직관으로 그 난관을 돌파할 때가 있다. 그리 크게 주목받은 바 없지만, 조지훈의 다음과 같은 〈모죽지랑가〉 풀이가 그 예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난 봄 생각하매 내 설움 그지없다
아름다우시던 그 모습 주름이 지단 말가

* 상지대학교

눈 깜작할 사이에 만나뵈게 되올 것을
임 그리는 마음, 입을 찾아 무덤가에 하룻밤을 세우리라¹⁾

조지훈은 〈모죽지랑가〉를 추모가로 읽는다. 이렇게 읽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蓬次叱巷’을 ‘蒿里’로 파악한 시인으로서의 직관 때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긴 감이 있지만, 그의 논의를 모두 살펴보기로 하자.

모죽지랑가를 조가에 넣은 것은, 그것이 가의로 봐서 죽지랑 사후에 득오가 읊은 추모가 같기 때문이다. 양주동씨는 죽지랑 생전의 사모가로 해하였지만, 이 노래의 말구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의 「蓬次叱巷」, 곧 「다봇구렁」을 「다봇마을」이라 하여 동리 이름으로 본 것은 아무래도 미심하다. 「봉향」(다봇굴형)은 줄건에는 「호리」, 곧 무덤이다. 다시 말하면,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의 가의는 임 그리는 마음이 입을 찾아 무덤가에 하룻밤을 세우리라,는 뜻이다. 봉향이 마을 이름이라는 것은 무리하고, 또 존경하는 이의 사는 곳을 봉향이라 할 리도 만무하니, 이 봉향은 그 글자와 꼭 같은 뜻인 호리(다봇마을)로 보면 호리는 무덤의 뜻이니까 무덤을 다복죽 우겨진 구렁이란 뜻의 아어로 쓴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그 앞의 구,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鳥支惡知作乎下是」에서 눈 돌릴 사이에 만나게 되리라는 말은 입을 돌아가서도 저도 죽으면 입을 뵈올 날이 멀지 않다,는 뜻으로 볼 것이니, 悲不幾時」라는 슬픔도 몇 날 아니라,는 말은 제문이나 만가의 관용구이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이렇게 죽지랑 사후의 추모가로 보면, 전편의 대의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²⁾

조지훈이 〈모죽지랑가〉를 추모가로 본 이유는 두 가지다. ‘蓬次叱巷’이란 형상의 존재와 ‘悲不幾時’란 관용구의 사용이 그것이다. 한편 크게

1) 조지훈(1973a), 90쪽.

2) 조지훈(1973a), 90쪽. 한편 조지훈(1973b), 381쪽에서는 『삼국유사』 「감통」 「광덕·엄장」에 나오는 “明日歸訪其居 德果亡矣 於是乃與其婦收骸 同營蒿里”란 구절을 추모가 가능성을 위한 증거의 하나로 더 들고 있다.

주목한 바 없지만, ‘哭屋尸以憂音’의 ‘哭’ 또한 추모가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³⁾ 곧 소리 내지 않고 우는 ‘泣’ 대신 소리 내어 우는 ‘哭’을 쓴 사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학적 직관상 〈모죽지랑가〉는 추모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이러한 가정 아래 출발하여 어학적 해독을 시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작품 해석을 가하는 순환론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학에서 시작해 어학으로 들어가되, 그곳에서 다시 문학으로 돌아오는 방법적 과정은 작품 연구의 정교함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분간 향가 연구는 어학과 문학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휘의 정확한 해독이 없는 문학적 해석은 사상누각이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독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문학적 직관은 이때 힘을 발휘한다. 만약 〈모죽지랑가〉를 추모가로 읽을 경우, 그 결과가 배경설화나 당대 역사와 무리없이 결합되거나 또는 어학적 해독의 자체 정합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가정은 보다 논리적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2. 난해어 해독

2.1 텍스트

〈모죽지랑가〉는 이른바 8구체 향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앞의

3) 김학성(1997), 179쪽의 주47)에서도 이러한 발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 사실은 필자의 착상 이후 연구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2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⁴⁾ 이 경우 〈모죽지랑가〉는 10구체가 된다. 이 주장은 일정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제 10구체를 6행시 형태로 바꾸어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⁵⁾

[
去隱春皆理米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2.2 어휘 의미

2.2.1 皆理米

양주동은 ‘皆理米’를 ‘그리매’로 풀다.⁶⁾ 여기서 ‘皆’는 ‘기’ 또는 ‘괴’의 잉차로 본다. 이에 대해 김완진은 ‘그리-’라는 동사를 나타내는데 이미 ‘慕理’가 쓰이고 있기에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⁷⁾ 그러나 “郎也慕理尸心未”의 ‘그리-’는 ‘慕’를 의미하지만, “去隱春皆理米”의 ‘그리-’는 ‘畫’를 의미한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⁸⁾ 그리고 표기 방식도 훈차에서 음차로 바꾼 것이다.

4) 박재민(2004), 20~21쪽.

5) 이것은 三句六名을 3단 6행으로 보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6) 양주동(1965), 78쪽. 이하 이 책에 의한 양주동의 해독은 특별히 각주 표시하지 않는다. 〈모죽지랑가〉 부분은 이 책의 67~194쪽에 해당한다.

7) 김완진(1980), 54쪽. 이하 이 책에 의한 김완진의 해독 역시 각주 표시하지 않는다. 〈모죽지랑가〉 부분은 이 책의 53~67쪽에 해당한다.

물론 «보현시원가» 제1가 <예경제불가> “心未筆留 慕呂白乎隱佛體前衣”의 ‘畫’ 역시 ‘慕’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皆理米’를 ‘그리매’로 읽을 수 없다는 재반론이 나올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皆理米’는 이 작품에 안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된 표기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가끔씩 일어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무엇보다도 ‘皆理米’를 ‘그리매’로 읽지 않으면, 시적 문맥을 살릴 방법이 없어 보인다.

‘去隱’은 흔히 ‘동사 어간(去) + 관형형 어미(隱)’으로 분석되나, 보조용언이나 어말어미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⁹⁾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은 보조용언으로, ②는 어말어미로 쓰인 경우다.

- ① 白雲音遂于淨去隱安支下 [찬기파랑가]
- ② 路乙 步良尔 而以 去去隱 如中隱 [화엄경 14, 04:21]
길을 걸어 간 때에는

①과 ② 어느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든 ‘去隱’ 앞에는 빠진 글자가 있다. ‘去隱’은 그러므로 ‘~간’ 또는 ‘-니’으로 해독된다. ‘去隱’을 받는 명사가 봄이라는 점을 고려해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면, 아마도 ‘흘러간’ 또는 ‘지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볼 경우, “去隱春皆理米”는 “지난 봄 그리매”, 곧 “지난 봄을 생각하니”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2.2 居叱沙

불능을 나타내는 부사 ‘毛冬’, 곧 ‘모돌’을 고려할 때, ‘居叱沙’는 용언

8) 김준영(1982), 77쪽에도 이러한 발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 또한 필자의 착상 이후 연구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9) 박재민(2004), 9~12쪽.

이 된다. ‘居’는 훈차가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 뜻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가에 있다. 지현영은 이를 ‘잇사’로 해독하고, ‘毛冬居叱沙’를 ‘그저 있을 수 없어’로 설명한다.¹⁰⁾ ‘잇사’는 해독상의 문제는 없으나, 그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여기에는 생략된 어휘가 있지 않은가 한다. 황패강은 ‘더’라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본다.¹¹⁾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이 노래가 죽음을 넘어선 만남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함께’ 정도의 부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경우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은 “함께 있지 못하여 울고 싶은 이 마음” 정도로 해독된다.¹²⁾

2.2.3 阿冬音

김유범에 따르면, ‘阿冬音’은 미를 뜻하는 ‘아듬’이 된다.¹³⁾ 이 경우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은 ‘아듬곳 도호시온’, 곧 ‘아름다움이 좋으신’이란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전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그 의미를 조금 확장한다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정도의 뜻이 되지 않을까 한다.

2.2.4 墮支行齊

김완진에 따르면, ‘墮支行齊’는 ‘헐니저’, 곧 ‘헐어가도다’로 해독된

10) 지현영(1947), 13쪽.
11) 황패강(2001), 377쪽. “간 봄 그리워 함에 (임께서 더) 못 살으사 울어 설워 하 나이다”
12) 강길운(1995), 127~128쪽에 따르면, ‘哭屋尸以憂音’은 ‘울울 이 시름’, 곧 ‘울고 싶은 이 마음’으로 읽힌다. 이하 이 책에 의한 강길운의 해독 역시 각주 표시하지 않는다. <죽지랑가> 부분은 이 책의 119~151쪽에 해당한다.
13) 김유범(1998), 113쪽.

다.14) 이 경우 주어는 ‘죽’, 곧 얼굴이 된다. 그런데 얼굴이 헤어간다는 표현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김완진이 이미 적절하게 읽은 바대로 화폭에 담긴 얼굴이 바래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5) 사정이 이렇다면, 죽지랑의 영정이 모셔진 재전에서 득오가 추모의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年數就音’은 김완진의 설명대로 ‘히 헤나삼’, 곧 ‘해가 갈수록’이란 뜻을 지닌다.

2.2.5 廻於尸七

양주동은 ‘廻於尸七’을 ‘돌칠’, 곧 ‘돌릴’로 해독한다. 이 경우 ‘目煙廻於尸七史伊衣’는 ‘눈 깜짝할 사이에’가 된다. ‘目煙’의 ‘煙’은 양주동의 해독대로 ‘눈’의 말음첨기로 보아도 좋고, 김완진처럼 ‘煙’을 니, 곧 ‘눈’의 말음 ㄴ+ 속격 -이/-의’의 결합으로 봐 ‘目煙’을 ‘누늬’로 읽어도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2.2.6 作乎下是

김완진에 따르면, ‘作乎下是’는 ‘일오아리’가 된다. 이 경우 ‘逢烏支惡知作乎下是’는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지훈이 이미 적절하게 판단한 것처럼 ‘悲不幾時’, 곧 “슬픔도 몇 날 아니다.”라는 관용적 표현과 연관된다. 다만 이 구절은 의례적 표현을 넘어 죽지랑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惡知作乎下是”는 “눈 깜짝할 새 만나려면 어찌하면 될까요” 정도로 풀이된다. 거기에는 “님이여 죽으면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라는 득오의 간절한 추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

2.2.7 蓬次叱巷

‘蓬次叱巷’은 강길운의 해독대로 ‘다붓굴형’으로 읽고, 그 의미는 조지훈의 발상에 따라 무덤을 취한다. 이 경우 ‘宿尸夜音有叱下是’는 “잘 밤 있으리오”가 된다. 조지훈은 이것을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새우며 죽지랑을 추모하겠다는 의미로 읽고 있지만, 여기서는 득오의 마음을 조금 더 간절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나온 “逢烏支惡知作乎下是”는 득오가 죽지랑에게 던진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득오 스스로에게 던진 자문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宿尸夜音有叱下是” 또한 득오가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된다. 그러므로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란 마지막 두 행은 “님의 무덤가에서 죽음을 곁행할 정도로 님 그리는 마음이 지극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의 성격을 띤다. 물론 이 자문 속에는 죽음을 통해 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꿈꾼 득오의 결의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때 ‘宿’은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만남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어휘가 된다. 왜냐하면 자고나면 일어나기 때문이다.

3. 배경설화와 작품의 성격

3.1 6행시

14) 다만 ‘躑’를 ‘힐다’로 읽은 것은 서재극(1979), 14쪽이 처음이다.

15) 김완진(2001), 124쪽.

득오는 죽지랑의 낭도로서 그 직위는 급간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급간은 신라 17관등 중 제9위에 해당한다. 진골을 제외하고는 육두품만이 받을 수 있는 관등이다. 그러므로 득오는 육두품 출신이 된다. 그러나 죽지랑과 득오 사이의 사건이 선덕왕(632~646) 초기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¹⁹⁾ 득오의 급간 직위는 이때 얻은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은 관등일 수도 있다.²⁰⁾

그런데 [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득오는 모량리의 익선 아간으로부터 차출당해 창직의 직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B]에서는 관례에 따라 익선의 밑에서 부역을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수례부역’으로 표현한다. [A]의 창직과 [B]의 부역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창직은 군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²¹⁾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죽지랑도 그것을 ‘사사적피’라 하지 않고 ‘공사진거’라 말한다. 그러나 [B]의 부역은 탈법적 관행에 따른 사사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간진은 익선을 ‘암색불통’의 인물로 폄하한 것이다.

익선의 지위는 아간이다. 아간은 신라관등제에 있어서 제6등급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다. 그렇다면 익선은 육두품 출신인가? 익선은 모량리 출신이다. 모량리는 신라 육촌

의 하나로 대수촌, 점량촌으로 불려오다 중대에 이르러 이 이름으로 바뀐다. 모량리는 특히 왕비 배출 지역으로 외척세력이 강한 곳으로 이해된다.²²⁾ 익선이 육두품 출신인지 아니면 진골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익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량리가 부곡의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²³⁾ 진골 출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선덕왕은 익선 사건을 빌미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꾀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치사적 상황 속에서 죽지랑은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반면, 익선은 사적인 이익을 노리는 인물로 폄하된다. 곧 ‘중사풍미’는 단순히 자신의 수하를 편드는 일이 아니라, 공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 된다. 죽지랑은 누구인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진덕왕 3년(649) 대장군 김유신, 장군 진춘, 천존 등과 더불어 백제 장군 은상의 군대를 막다.
- ② 진덕왕 5년(651) 파진찬(17관등의 제4위)으로 집사부의 초대 중시에 올라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다.
- ③ 문무왕 원년(661) 소관(17관등의 제3위)에 올라 흠순, 진흠, 천존 등과 함께 백제의 여적을 토벌하다.
- ④ 문무왕 8년(668) 이찬(17관등의 제2위)에 올라 경정총관이 되다.²⁴⁾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助請 猶不許 又以珍節舍知騎馬鞍具貽之 乃許(일연(1954), 『孝昭王 竹旨郎』, 76~77쪽.)

19) 김승찬(1998), 123쪽 참조. 이 사건의 발생시기와 관련해 비효소왕대설을 제출한 최초의 연구자는 삼品彰英(1943)이다. 이후 신수식(1961)에 의해 이 문제가 정식 논문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밖에 박재민(2005) 역시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 조목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사건 발생시기를 선덕-진덕왕대로 본 바 있다.

20) 이웅재(1990), 183쪽에 따르면, 득오의 급간 취득은 익선에게 차출될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득오가 익선에게 차출되어 사사로운 일에 사역당한 사실로 보아 급간 직위를 이때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1) 이도흠(1988), 150쪽에 따르면, 익선이 맡은 幢典은 군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직책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倉直 역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군역의 하나가 된다.

22) 이도흠(1998), 143쪽 참조.

23) 이도흠(1998), 144쪽 참조.

24) ① 三年春正月(中略) 秋八月 百濟將軍殷相率衆來 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大將軍庚信將軍陳春竹旨天存等出拒之[김부식(1998), 『신라본기』, 「진덕왕·선덕왕·태종왕」, 77면.]; ② 五年春正月朔(中略) 二月 改稟主爲執事部 仍拜波珍浪竹旨爲執事 中侍以掌機密事務[김부식(1998), 『신라본기』, 「진덕왕·선덕왕·태종왕」, 78쪽.]; ③ 龍朔元年春 王謂 百濟餘燼尙在 不可不滅 以伊滄品日 蘇判文王 大阿滄良圖等 爲將軍 往伐之 不克 又遣伊滄欽純(一作欽春)眞欽天存 蘇判竹旨等 濟師[김부식(1998), 『열전』, 〈김유신〉, 437~438쪽.]; ④ 八年(中略) 二十一日 以大角干金庚信 爲大幢大總管 角干金仁問欽純天存文忠 迺滄眞福波珍浪智鏡 大阿滄良圖愷元欽突 爲大幢總管 伊滄陳純(一作春)竹旨爲京停總管(後略)[김부식(1998), 『신라본기』, 「문무왕 상」,

죽지랑의 출생에 관해서는 앞서 인용한 「효소왕 죽지랑」 조목의 다다음 문단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

예전 술종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 임지로 가려는데, 삼한에 병란이 있어 기병 삼천 명이 그를 호송했다. 일행이 죽지랑에 이르니 한 거사가 그 고갯길을 닦고 있었다. 공이 이를 보고 찬탄하자 거사 또한 공의 위세를 좋게 여겨, 서로 마음이 통한 바 가 있었다. 공이 주의 치소에 부임한지 한 달이 지나서, 꿈에 거사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부인도 같은 꿈을 꾸었으므로,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이튿날 사람을 보내 거사의 안부를 물었다. 그곳 사람이 말하기를, “거사가 죽은지 며칠 되었다.”라고 했다. 사자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아뢰는데, 그가 죽은 날이 꿈꾸던 바로 그날이었다. 공이 말하기를, “아마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모양이다.”라고 했다. 다시 군사를 보내 고개 위 북쪽 봉우리에 장사지내게 하고, 돌미륵 한 구를 만들어 무덤 앞에 안치케 했다. 부인이 꿈을 꾸던 날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자 이름을 죽지라고 했다. 장성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부원수가 되어 유신공과 함께 삼한을 통일했다. 진덕 · 태종 · 문무 · 신문의 4대에 걸쳐 재상으로서 나라를 안정시켰다.²⁵⁾

죽지랑은 죽지랑 거사의 환생이다. 여기서 거사는 미륵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미륵불은 삼국시대 불교에 있어서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한 구원의 존재로 등장한다. 이때 미륵불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는 왕권과 곧잘 결합하는 특징을 지닌다.²⁶⁾ 사기나 유사의 기록을 통

88쪽.)

25)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獲送之 行至竹旨嶺 有一居士 平理其嶺路 公見之歎美 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 相感於心 公赴州理 隔一湖夢見居士 入于房中 室家同夢 驚怪尤甚 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 人曰 居士死有日矣 使來還告 其死與夢同日矣 公曰 殆居士言延於吾家爾 更發卒修葬於嶺上北峯 造石弓爾革力一軀 安於塚前 妻氏自夢之日有娠 既誕 因名竹旨 壯而出仕 與庾信公爲副帥 統三韓 眞德太宗文武神文四代爲冢宰 安定厥邦 [일연(1954), 77~78쪽.]

해 볼 때, 죽지랑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해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진력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곧 죽지랑은 ‘선공후사’의 정신을 가진 인물로 판단된다.

「효소왕 죽지랑」 조목의 [A]에 나타난바 죽지랑의 방문은 득오의 ‘공사진거’를 위로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²⁷⁾ 그렇다면 [B]에 나타난바 죽지랑이 익선에게 득오의 휴가를 신청한 것은 선공후사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그것이 득오가 짊어진 의무를 사적인 차원에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선공후사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다. 득오는 육두품 출신이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 된다. 사리 간진이 죽지랑을 ‘중사품미’를 가진 인물로 평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득오의 창직 진출은 명목상 공사에 속한다. 그러나 죽지랑은 그것이 득오에 맞는 직책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현실적 명분을 존중해 창직으로서의 균역을 인정하되, 대신 득오를 방문해 그에게 위로의 자리를 베푼다. 그리고는 익선에게 휴가를 청한다. 그것은 득오의 사회적 신분을 배려하는 행위가 된다. 아마도 죽지랑은 당대를 이러한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회적 통합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함께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통삼한’²⁸⁾의 역사적 과제를 완

26) 신라 불교에 나타난 미륵의 성격은 신영명(2005b), 194~196쪽을, 백제 불교에 나타난 미륵의 성격은 신영명(2007), 97~99쪽 참조.

27) 만일 득오가 급간의 직위를 받고 창직으로 부임한 것이라면, 그 방문은 당연히 축하의 자리가 된다. 그러나 득오가 익선의 발에서 사사로이 사역당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보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28) 十二年春(中略) 小國先王春秋諡號 偶與聖祖廟號相犯 勅令改,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頗有賢德 況生前得良臣金庾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臣民不勝哀慕 追尊之號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教勅 不勝恐懼 伏望使臣復命闕庭 以此上聞 後更無別勅 [김부식(1998), 「신라본기」, 〈신문왕 · 효소왕 · 성덕왕〉,

수하는데 있어 관건이 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죽지랑의 청가는 인재의 적재적소 기용을 통한 사회 통합과 국가 통일이란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돕는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해 득오를 위한 죽지랑의 청가는 중사풍미의 행위가 되며, 그것은 다시 공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 된다.

반면 익선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배공영사’의 인물로 볼 수 있다.²⁹⁾ 간진은 익선을 암색불통이라 평한다. 암색불통은 고루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을 배공영사와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암색불통은 기존의 관습을 지나치게 고수하는데서 나온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관습에 얽매어 기득권에 매몰되면, 공적 가치의 구현은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것은 사적 이익의 추구로 흐르기 쉽다. 익선은 실제 득오를 공적으로 불러놓고 사적으로 부린다. 암색불통이 배공영사로 흐르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익선이 암색불통과 배공영사의 부정적 인물이라면, 죽지랑은 중사풍미와 선공후사의 정신을 지닌 긍정적 인물이 된다. 죽지랑의 이런 정신은 골품제 사회의 모순을 완화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한다. 곧 중사풍미와 선공후사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일통삼한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득오가 죽지랑을 ‘아담곳 도호시은 중’, 곧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찬양한 것은 단순히 이목구비 뚜렷한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정신의 높이에 방점이 찍힌 때문이라 할 수 있

106쪽.]

29) 이러한 인물로는 효소왕대 一吉滄 諸逸이 있다. “靈巖郡太守 一吉滄諸逸 背公營私 刑一百杖 入島 [김부식(1998), 『신라본기』, 〈효소왕〉, 107쪽.] 이렇게 볼 때, 선덕왕 때 익선 사건은 이런 영향으로 인해 효소왕대 기록으로 섞여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다.

3.3 아름다운 얼굴을 기리며

〈모죽지랑가〉의 창작연대는 언제인가? 이 노래가 추모가라면, 죽지랑 사후가 된다. 이 작품의 창작연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죽지랑의 생몰 연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죽지랑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하나는 진평왕 38년인 616년설이며, 다른 하나는 선덕왕 1년인 632년설이다.³⁰⁾ 죽지랑이 선덕왕 5년(651) 집사부의 초대 중시에 오른 사실을 고려할 때, 632년설보다는 616년설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632년설에 따르면 19세, 616년설에 따르면 35세에 중시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19세에 곧바로 중시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죽지랑은 진덕·태종·문무·신문의 4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과 함께 『삼국유사』 효소왕 대목에 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죽지랑의 몰년은 신문왕대(681~692)나 효소왕대(692~702)의 어느 한 시점이 된다.³¹⁾ 각 시기의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잡으면, 죽지랑의 향년은 76세 또는 86세가 된다. 이 경우 〈모죽지랑가〉의 창작은 죽지랑 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 안에 득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죽지랑과 득오는 비슷한 연배로 보인다. 이 경우 〈모죽지랑가〉는 득

30) 김승찬(1998), 122쪽에선 616년설을, 이웅재(1990), 198쪽에선 632년설을 각각 주장한다. 윤영욱(1982), 182쪽에서는 이웅재와 비슷하지만 연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선덕왕 초 어름으로 주장한다.

31) 죽지랑의 사거를 신문왕대로 잡는 가설은, 『삼국유사』 효소왕대 죽지랑의 기록이 잘못 편차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입각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재민(2005), 146~147쪽 참조.

오의 70~80대 작품이 된다. 곧 〈모죽지랑가〉는 득오의 만년작이다. 득오는 죽지랑의 죽음을 맞아 그와 함께 지낸 봄날과도 같은 청춘을 추억한다. 죽지랑의 영정이 있는 재전에서 추모의 정을 나누면서 지금 그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슬퍼한다. 이목구비 뚜렷한 얼굴을 떠올린다. 무엇보다도 중사풍미와 선공후사의 아름다운 정신을 기린다. 이 모든 것이 사리진 지금, 득오는 시름을 앓을 수밖에 없다. 제1단 제2행 “지난 봄 그리매 모듈 잇사 울울 이 시름”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이 시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득오는 죽음을 상상한다. 그는 죽지랑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이 과연 죽음을 넘어설 정도인지 자문한다. 곧 죽음을 초월해 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 상상한다. 제3단의 “낭이여 그릴 마스미 녀올 길/ 다붓굴형히 잘 밤 이 샤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발언이 된다. 죽음은 몸의 이별일 수 있지만, 그것을 정신의 만남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시름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된다. ‘宿’은 그 역설을 알려주는 어휘다. 그것은 단지 조지훈의 해석처럼 무덤가에서 하룻밤을 새우는 차원의 추모는 아니다. 아름다운 정신을 영원히 기릴 수 있다면, 몸의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고나면 다시 일어나듯이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정신이 영원히 계승된다면, 죽음은 한낱 껍질에 불과하다. 이것이 〈모죽지랑가〉에 나타난 추모 정신의 핵심이다.

4. 맺음말

〈모죽지랑가〉는 해독상 까다로운 어휘가 많은 향가다. 그러므로 작품의 전면에 흐르는 어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모죽지랑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추모가와 사모가로 대별된다. 여기서는 조지훈의 발상에 따라 추모가의 입장에 선다. ‘蓬次叱巷’이나 ‘땀’ 등이 추모의 어조를 나타내는 어휘가 된다. 이 노래를 추모가로 볼 경우, ‘隨支行齊’ 같은 어휘는 실제 얼굴이 아니라 영정 속의 얼굴이 혈어간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반면 사모가로 볼 경우, 얼굴에 주름이 지듯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모가 관점의 해독은 ‘隨支行齊’를 무리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³²⁾

이 예에서 보듯 〈모죽지랑가〉를 추모가로 풀면 해독상의 무리를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문학적 직관에서 출발해 어학적 해독을 시도하고 이를 다시 작품 해석에 적용한 순환론적 방법은 향가 연구의 한 예제가 될만하다. 어학과 문학의 만남이란 방법론은 당분간 향가 연구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죽지랑가〉는 죽지랑을 추모한 노래다. 득오가 죽지랑을 추모한 이유는 그가 보여준 정신의 높이 때문이다. “아듭곳 도흐시온 줌”에 나타난 중사풍미와 선공후사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익선의 암색불통과 배공영사와 대비될 때, 그 정신의 높이는 더욱 뚜렷이 각인된다. 그리하여 득오는 죽지랑의 아름다운 얼굴, 그 얼굴 속에 담긴 정신을 기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한다. 그 결과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정신과의 영원한 만남을 희구한다. “낭이여 그릴 마스미 녀올 길/ 다붓굴형히 잘 밤 이샤리”란 구절이 그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된다.

32) 양주동(1965)은 ‘年數就音’을 ‘살쭈’로 보고 ‘隨支行齊’를 ‘디니저’로 풀다. 곧 주름살을 얼굴에 지닌다는 식으로 해독한다. 두 어휘의 해독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 참고문헌

강길운, 『향가신해독연구』, 학문사, 1995.
 김부식, 『원본 삼국사기』, 이강래 교감, 한길사, 1998.
 김승찬, 『신라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준영, 『향가해독』, 형설출판사, 1982.
 김학성, 「향가 장르의 본질」,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10구체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16, 한국시가학회, 2004.
 박재민, 「〈모죽지랑가〉의 사건 발생시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3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4.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三省堂, 1943.
 신수식, 「모죽지랑가 창작연대 연구」,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961.
 신영명, 『고전문학 사회사의 탐구』, 새문사, 2005a.
 신영명, 「〈도술가〉, 구원의 문학」, 『우리문학연구』 18, 우리문학회, 2005b.
 신영명, 「〈서동요〉의 역사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21, 우리문학회, 2007.
 양주동,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1965.
 윤영옥, 『신라가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2.
 이도흠, 「모죽지랑가의 창작배경과 수용의미」, 『한국시가연구』 3, 한국시가학회, 1998.
 이웅재, 『향가에 나타난 서민의식』, 백문사, 1990.
 일 연, 『증보 삼국유사』, 최남선 편, 민중서관, 1954.
 조지훈, 「신라가요연구 논고」, 『조지훈전집』 7, 일지사, 1973a.
 조지훈, 「고전문학 주해 문제」, 『조지훈전집』 6, 일지사, 1973b.
 지현영, 『향가여오신석』, 정음사, 1947.
 황폐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Jookjirang, a handsome face reflecting the purity of his heart

Shin, Young-myoung

Deuko cherished the memory of Jookjirang because of the depth of his mind.

Deuko respected the spirits of Joongsapoongmee(重士風味) and Seonkonghoosa(先公後私), which were found in Jookjirang. Joongsapoongmee upholds the mind that think highly of a man of virtue, while the spirit of Seonkonghoosa supports the attitude of putting the public interest before the private needs.

When compared to the Yeekson's Amsebultong(暗塞不通) and Baegongyoungsa(背公營事), the spirits of Joongsapoongmee and Seonkonghoosa radiate the depth of profoundness and are in striking contrast.

So Deukou gave high praise to a spirit found in Jookjirang's handsome face. He sought everlasting encounter with the spirit through death, which would transcend it. Though it might sound like a paradox.

Key Word : Mojookjirangka, Choomoka, Joongsapoongmee, Seonkonghoosa, Hyangka